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수혜자 2천 명 돌파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의 수혜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9월 18일 청주 오스코에서 의료비후불제 2천 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고 도민과 성과를 함께했다. 행사에는 김영환 도지사, 이양섭 도의회의장, 의료·금융기관 관계자, 사회단체, 수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 카운트다운 세레머니를 시작으로 감사패·표창장 수여, 홍보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김영환 지사는 “의료비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도”라면서, “2천 명 돌파는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후불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세종 미용 실습 사육견

58마리 구조·보호 조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금남면 소재 국유지 비닐하우스에서 부적절한 사육환경에 놓인 개 58마리를 즉시 구조·보호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애견미용 실습견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 58마리를 (사)동물자유연대와 협조해 구조하고 동물자유연대 소속 보호센터와 동물보호센터로 각각 보호조치했다. 시는 (사)동물자유연대로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사육환경을 살폈다.

그 결과 다중 케이지 사육, 환기 불량, 배설물 적체, 쥐 출몰 등 위생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개를 사육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소유주에게 동물위해 방지조치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의무에 대해 계도 조치한 상태다. 또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및 무허가 영업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소유주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는 등 조치하고, 이곳에서 사육되던 개를 미용 실습견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애견미용학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 연고 협약을 맺은 BDH파라스 장애인사격실업팀이 최근 ‘제34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각 1개 획득했다.

이채봉 기자

5년 11조 투입하는 ‘서해안 수소벨트’

충청남도, 발전사·기업 등과 업무협약…수소생산시설 등 23개 사업 추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 중인 충청남도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밀집한 서해안 일원에 친환경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국내 최대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탄소배출 전국 1위 충남을 글로벌 수소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김태홍 지사는 18일 제7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19개 기관·단체·대학·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본격 추진을 안팎에 선언했다.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는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수소경제 선도 국가 도약의 혁신 거점, 충남’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수요 대응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 확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친환경 수소도시 구축 △수소 전문기업 및 인력 양성 등이다.

2040년까지 목표는 △수소 120만 톤 생산 △수소 혼소·전소 발전 20GW △수소도시 10개소 조성 △수소 전문 기업 200개 육성 △수소차 5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80개소

340기 설치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10조 9173억 원을 투입해 23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당진·서산·보령·태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당진 암모니아 부두·수소생산시설·수소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수소특화단지 등 국가 공모 사업에 중점 대응한다. 또 연차별로 수소 생산 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보령·당진·서산에 이어 태안을 충남 네 번째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4개 수소도시에는 총 1490억 원을 투입, 수소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스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암모니아 수소 연료전지 발전 규제자유특구 추진 △액화수소 기술 개발 전문 랩(LAP)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추진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홍 도지사는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를 적극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도민체육대회 공유로 더 나은 대회 만든다

충북도 ‘함께 만든 땀, 함께 나눌 지혜’ 도민체육대회 디브리핑 행사 개최

충청북도는 18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도민체육대회 디브리핑(공유·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도민체육대회의 운영 성과와 경험을 차기 개최 시군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대회 준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더 나은 대회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민체육대회는 매년 도내 시군이 순환하며 개최하는 충북의 최대 규모 체육행사로, 지역의 화합과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행사다.

그러나 매년 바뀌는 개최 시군마다 준비 부담이 큰 데 반해, 대회 준비와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각 시군이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에 충북도는 대회 준비에 담긴 땀과 노력, 시행착오 속에 쌓인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개최 시군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자 중심의 공유·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디브리핑에는 도와 시군의 체육·행정 실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도민체전 운영결과 공유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개선점 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 방향을 모색했다.

행사에 참석한 음성군 관계자는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개최 시군의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운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겨 정말 뜻깊었다”면서 “충북도와 시·군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체전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매년 이런 자리가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충북도는 ‘도민체전은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도민이 하나 되는 축제이자 지역이 함께 성장하

는 과정’이란 인식으로 성공적인 대회 운영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실무자 간에 직접 공유함으로써, 차기 대회 개최 시군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9월 20일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행사장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 참여한 이동욱 행정부지사는 행사장 주요 시설물과 관람객 이동 동선, 응급 의료체계, 대피공간 확보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돌발 기상 상황이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동욱 행정부지사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추석연휴엔 전통시장 더 편리하게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정차 2시간 내 확대 허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18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을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단속유예구간은 읍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갑조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 위험을 방지하고자 강력 단속한다.

세종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인근 주차장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이 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18일 IBK기업은행과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하려는 기업이 동행지원 협약 보증서로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기업 부담 보증료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채봉 기자

한밭야구장에서 불꽃야구 첫직관



야구특별시’ 대전이 오는 9월 21일 오후 5시, 한밭야구장(대전 FIGHTERS PARK)에서 리얼 야구 예능 『불꽃야구』 첫 직관 경기를 연다.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활용·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첫 무대다. 대전에서 처음 열리는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레전드 선수들이 꾸린 ‘불꽃 파이티즈’와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의 맞대결이라는 예능·스포츠 융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상대팀 수원 유신고등학교는 2025년 황금사자기 준우승, 봉황대기 4강에 오른 강호로, 현역 못지않은 전직 프로선수들과의 대결에 팬들의 기대가 크다.

예매는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8분 만에 매진됐다. 전국에서 1만 2천여 명의 관중이 몰

릴 예정이며, 경기장 주변에는 문창·부사시장상인회, 충무자전거거리 상점가가 참여하는 임시시장이 열리고, 관광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꿈돌이매장』(라면·호두과자)도 시민들을 맞는다.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불꽃야구』 유치 및 전용구장 운영을 위한 3자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 8월 17일과 9월 7일, 일반(무관중) 경기 운영을 통해 현장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와 더불어 FIGHTERS PARK가 전국의 야구팬들이 찾는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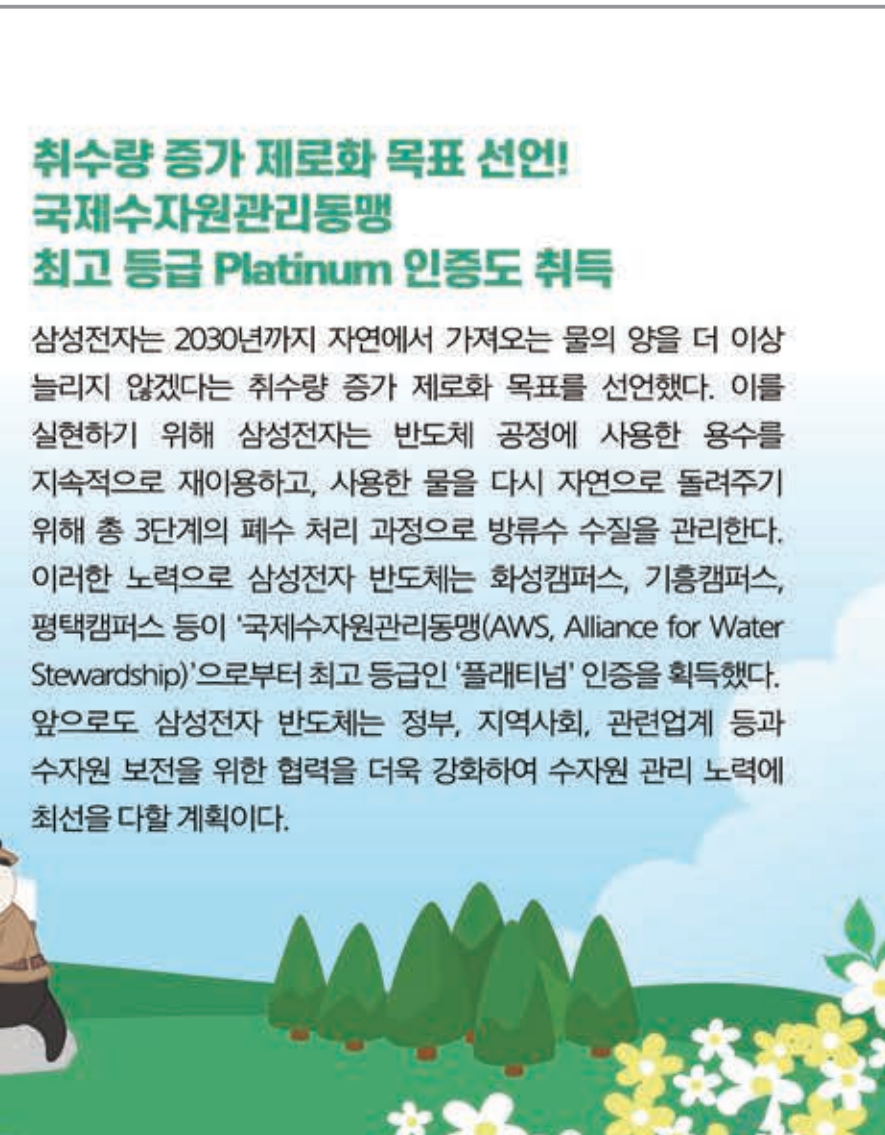
이채봉 기자



Clean Water

수달이 돌아왔다! 오산천 수생태계 복원에 힘쓴 삼성전자 반도체

수생태계가 악화되던 오산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수생태계가 건강하고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과거 오산천은 건전화로 인해 생태계가 악화되고 악취도 났었다. 오산천 상류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는 2007년부터 오산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용수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루에 약 4만 톤 정도의 물을 방류한 것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수질 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고, 토종 물고기를 방류하는 등 꾸준히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취수량 증가 제로화 목표 선언!
국제수자원관리동맹 최고 등급 Platinum 인증도 취득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자연에서 가져오는 물의 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취수량 증가 제로화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한 용수를 지속적으로 재이용하고, 사용한 물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기 위해 총 3단계의 폐수 처리 과정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는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 평택캠퍼스 등이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반도체는 정부, 지역사회, 관련업계 등과 수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자원 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